

“정신차려” 한마디에 정신 번쩍…KIA 김도현 시즌 첫 승

NC전 5%이닝 3K 비자책
6경기만에 값진 승리 따내
팀 토종 선발진 첫 승전고



“감독님이 그렇게 화내시는 건 처음 봤어요.”

KIA 타이거즈 우완 김도현이 드디어 웃었다.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시즌 첫 승리투수가 된 김도현은 팀 토종 선발진 가운데 가장 먼저 승리를 챙겼다. 경기 초반 홈런을 맞고 흔들렸지만 벤치의 질책을 계기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으며 팀에 의미 있는 승리를 안겼다.

김도현은 지난달 2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NC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5%이닝 6피안타(1피홈런) 2사사구 3탈삼진 3실점(비자책)을 기록하며 시즌 첫 승을 따냈다. 이날 6회 2사까지 마운드를 지킨 김도현은 앞선 5경기에서 승리 없이 2패를 기록했으나 팀 타선의 지원 속에 시즌 6번째 도전 만에 시즌 첫 승의 기쁨을 맛봤다.

시즌 첫 승의 배경에는 이범호 감독의 따끔한 질책이 있었다. 2회초 수비 실책과 몸에 맞는 공으로 위기에 놓인 김도현은 NC 김형준에게 3점 홈런을 허용했고 벤치로부터 ‘정신차려’라고 들었다. 3회 다시 마운드로 돌아온 김도현은 집중력을 끌어 올리며 팀의 추격 발판을 마련했다.

경기 후 만난 김도현은 “감독님이 그렇게 화내시는 건 처음 봤다. 정신차리라는 말을 듣고 나도 정신 차리고 던졌다. 더 집중할 수 있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야수들의 든든한 지원도 김도현의 어깨를 가



KIA 타이거즈 김도현이 지난달 2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KIA 토종 선발진 중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KIA 제공

볍게 했다. 그는 “야수들이 매 경기마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날이 있으니까 내가 더 버텨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공격이 터지는 날 야수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내가 잘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도현의 부모님이 경기장을 찾았다. 그

는 “올 시즌 부모님이 내가 등판한 다섯경기 모두 경기장을 찾아왔다. 그동안 승리를 따내지 못해서 오늘은 꼭 이기고 싶었다”고 밝혔다.

김도현의 첫 승은 단순한 1승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시즌 초반 흔들리던 국내 선발진에 자신감을 불어넣고, 팀 마운드에 활기를 더할 수 있

는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KIA 팬들에게도 기대했던 ‘토종 승리’의 신호탄이었다.

김도현은 “지난 경기에서는 커브를 너무 많이 던져서 오히려 독이 됐다. 오늘은 모든 구종을 적절히 사용하려고 했다.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계속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토종 선발

로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올 시즌 꾸준한 로테이션을 소화하며 발전하고 있는 김도현은 “이전 경기들도 모두 경향이 있다. 그걸 계속 떠올리며 다음 경기에도 이어가고 싶다. 구속도 꾸준히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조혜원 기자

광주FC, 어린이날 품퐁푸린 유니폼 입고 뛴다

초등생 입장권 천원 이벤트도

광주FC가 어린이날을 맞아 동심 가득한 선물을 준비했다.

30일 광주FC에 따르면 오는 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김천상무와의 홈경기에서 인기 캐릭터 ‘품퐁푸린’ 유니폼을 선보이고 초등학생에게는 입장권을 1,000원에 제공한다. 경기장 안팎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는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K리그와 산리오캐릭터즈의 콜라보로 광주에 배정된 캐릭터 ‘품퐁푸린’은 귀여운 이미지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선수들은 품퐁푸린 캐릭터가 전면, 후면, 소매에 부착된 특별 유니폼을 착용해 어린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경기 후 선수들이 착용한 품퐁푸린 유니폼은 경매를 통해 판매되며, 발생한 수익금은 지역 내 어린이 병동에 기부돼 지역사회 공헌에 활용될 예정이다.

품퐁푸린 관련 패치, 핀버튼, 짐새, 예코백, 스티커 등 굿즈도 출시된다. 굿즈는 1일 오후 2시부터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경기 당일에는 경기장 내 MD샵에서도 판매된다. 현장에는 품퐁푸린 포토존도 마련돼 가족 단위 팬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광주FC가 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김천상무와의 홈경기에서 인기 캐릭터 ‘품퐁푸린’ 유니폼을 선보인다.

광주FC 제공

전망이다.

광주의 부주장이자 주전 풀백인 김진호 선수의 K리그 100경기 출장 기념행사도 진행된다. 현재 99경기 출장 중인 김진호 선수는 2일 울산전 출장을 통해 100경기 기록을 달성할 예정이며 5일 김천전에서 공식 기념 행사가 펼쳐진다.

광주FC 홈경기를 직접 관람한 경험이 있는 어린이 및 부모 중 4명을 선정해 시축 이벤트도 진행한다. 다양한 팬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돼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조혜원 기자

펜싱 ‘최강’ 사브르, 서울 국제 그랑프리 출격

2~4일 올림픽공원 SKT 그랑프리 오상욱·구본길 등 출전…전남 3명

한국 펜싱의 간판 종목인 사브르 선수들이 안방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서 메달 사냥에 나선다.

대한펜싱협회는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2025 서울 SK텔레콤 국제그랑프리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

그랑프리는 펜싱 국제대회 중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다음으로 많은 세계랭킹 포인트가 주어지는 권위 있는 대회로, 한국은 2015년부터 사브르 그랑프리를 열고 있다.

올해 대회엔 31개국 340여 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사브르는 지난해 파리 올림픽 때 한국 펜싱의 메달 전체(금2·은1)를 책임진 핵심 종목이다.

당시 주역인 남자 사브르 2관왕 오상욱(대전시청)을 필두로 우리나라에선 40명의 선수가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 전남에서는 사브르 전수인, 김은선, 손정민(이상 전남도청)이 출전한다.

오상욱은 올림픽 이후 재충전 시간을 가지며 이번 시즌엔 국가대표팀엔 속하지 않은 채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가운데서도 세



박상원, 구본길, 오상욱, 파레스 페르자니, 전하영, 최세빈(왼쪽부터)이 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5 서울 SK텔레콤 국제그랑프리 미디어데이에서 각오를 다지고 있다. 연합뉴스

계랭킹 1위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번 대회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오상욱은 “올림픽 이후 제속의 또 다른 동기부여를 찾으려고 노력해왔다. 현재 대표팀은 아니지만, 이번 대회도 대표 선수의 마음으로 나왔다”면서 선전 의지를 다졌다.

오상욱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대표팀을 떠나 있는 베테랑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내에서 열리는 그랑프리 대회에서 한 번도 입상한 적이 없다. 메달 욕심이 있지만, 경기는 열심히 하되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

다”고 소감을 밝혔다.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대표팀 주축으로 자리잡은 ‘영건’ 박상원(대전시청·세계랭킹 5위)도 “올림픽 이후 팀 분위기가 많이 올라왔다. 개인적으로도 이번 대회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상위 랭커로서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매 경기 최선을 다해 시상대에 서고 싶다”고 다짐했다.

파리에서 사상 첫 올림픽 단체전 결승 진출과 은메달 획득에 힘을 보탰던 여자 사브르 대표팀의 세대교체 주역 전하영(서울시청)과 최세빈(대전시청) 등도 입상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이정후, 푹 떨어지는 커브 공략 적시타 ‘왕’

이정후(26·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특유의 콘택트 능력을 과시하며 6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이정후는 3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 파크에서 벌인 2025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방문 경기에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득점 1타점을 올렸다.

6회초 무사 2루, 이정후는 상대 선발 니 페

타의 시속 127km짜리 푹 떨어지는 커브를 받아쳤다. 타구는 중견수 앞으로 향했고, 2루 주자 윌리 아다메스가 홈을 밟았다.

이정후는 24일 밀워키 브루어스전에서 시작한 안타 행진을 6경기째로 늘렸고, 25일 밀워키전 이후 다섯 번째로 타점(시즌 17개)을 추가했다.

샌프란시스코는 4-7로 패해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디에이고에 0.5게임 차로 쫓겼다.

연합뉴스

광주체고 박주혁, 양궁종별선수권 2관왕 쾌거

광주체고 박주혁(2년)이 올해 첫 대회인 제59회 전국 남·여 양궁종별선수권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다.

30일 광주체고에 따르면 박주혁은 지난달 24일부터 9일간 경북 예천진호양궁장에서 열린고 있는 대회 남고부에서 개인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박주혁은 남고부 90m, 70m, 60m, 50m, 30

m 거리별 경기 점수 합산결과 1,343점으로 2위 최철준(강원체고·1,340점)을 따돌리며 1위를 차지했다.

박주혁은 90m경기에서 325점을 쏘 조세현(서울체고·326점)에 이어 은메달, 50m에서 339점으로 최철준(강원체고·340점)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박주혁의 눈부신 활약과 배경원, (3년) 심유

한(2년), 김종연(1년)이 선전을 펼친 광주체고는 총점 3,975점을 합쳐하며 공동 2위 서울체고(3,959점)·대전체고(3,959점)를 따돌리며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박주혁은 지난 5일 열린 제3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양궁 종목에서도 3관왕(90m·개인종합·단체전)을 차지하며 이승운(남구청)을 잇는 차세대 광주남자 양궁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다.

여고부에 출전한 남지현(3년)은 60m에서 값진 은메달을 수확했다.

조혜원 기자